

## 호남소외 상징 '경전선 전철화' 첫 삽 들까

뉴스초점

광주 송정~순천 116.5km  
 1930년 개통 후 그대로  
 KDI, 건설비 낮춰 여타조사  
 빠른 시일 내 사업 결정돼야

'호남 소외'의 상징으로, 광주와 부산을 잇는 철도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된다. 당초 전 구간을 새로 건설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부 구간은 기존 철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비용을 낮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상도(부산 부전)와 전라도(광주 송정)를 잇는 경전선은 중앙-호남-경부선과 함께 전국 4대 간선 철도망이다. 경전선 가운데 광주 송정~순천 구간은 유일한 단선이자 비전철로, 1930년 개통 이후 9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 소외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경전선 사업은 광주 송정~화순~보성~순천을 잇는 116.5km 구간을 2조30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선 전철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4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사업 추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균형발전 요소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와 함께 최근 들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관심 등이 맞물리면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다. 경제성(B/C)도 2015년 0.55, 2016년 0.74, 지난해 0.81로 점차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노선 조정이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전 구간 신선 건설 방침에서 4개 구간 29.6km는 기존선을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선 활용 구간은 광주 송정~나주 노안, 임성~보성 일부 구간, 보성 예당~조성, 순천시내 구간이다. 전체의 27.5%에 해당한다. 전남도는 변경안에 대해 조만간 광주시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변경안이 확정되면 올해 예산에 경전선 기본계획 수립비용 48억원이 이미 확보된 만큼 연내 첫 삽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 등은 B/C가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토균형발전과 경전선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해



거침 없는 여자 컬링 4강 진출  
 20일 오후 강원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기에서 김은정이 투구하고 있다. 이날 미국전 승리로 한국 여자 컬링팀은 준결승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2·18·19·20면

20일 오후 강원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기에서 김은정이 투구하고 있다. 이날 미국전 승리로 한국 여자 컬링팀은 준결승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2·18·19·20면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전선이 전철화되면 광주~부산 철도 소요시간은 현재 5시간30분에서 3시간 이상 단축된 2시간대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호남권과 영남권의 활발한 교류로 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화합, 남해권 성장동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만 4년이 넘었다"며 "경제성이 개선되고 기본 계획 수립비용 예산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사업 결정이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이방카 23일 방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3박4일 일정 문대통령과 면담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이 오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방카 고문은 오는 23일쯤 민항기로 방한해 3박4일간 머물다 오는 26일 출국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이방카 고문은 문재인 정부 올림픽 외교의 파란을 장식할 전망이다. 남북 대화 분위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우리 정부 구상에 상당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방카 고문의 첫 방문 일정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는 청와대에서 면담을 겸한 식사를 하고, 올림픽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등 최소 2회 이상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 독립적인 진상조사위 설치 '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강제 조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18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앞서 작년 12월 11일 이 중 4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6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나중에 발의된 하태경 의원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추가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세부 조율했다. 예를 들어 김동철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사위와 사무처 외에도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법

안소위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또 한국당 의견을 반영해 진상규명 범위 중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를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조사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이제 5·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안에 진술 실질적인 강제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아 진상조사위가 발족되더라도 실제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금 법안 내용만으로는 실제적인 진실 접근에 부족함이 있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보장하는 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조사 불능자나 거짓 진술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라며 "오늘 국방위 심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올 5·18기념행사 슬로건 확정

올해 5·18기념행사 슬로건이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으로 결정됐다.

20일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 따르면 올해 슬로건은 '5·18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오월의 진실을 시민 힘으로 밝혀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월에서 통일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깃들여 있다. 행사위는 지난 1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는 총 515건의 슬로

건이 접수, 심사를 거쳐 메인 슬로건 1건과 우수 슬로건 10건이 선정됐다.

한편, 행사위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정시추가모집] 2018. 2. 22(목) ~ 23(금)  
 [대학원추가모집 / 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2018. 2. 19(월) ~ 22(목)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게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